

##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 관련요인 분석

곽 정 옥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 목 차

I. 서 론	IV. 고 찰
II. 조사방법	V. 결 론
III. 조사성적	참고문헌

### I. 서 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흡연은 단일 요소로서 국민건강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위험 요인이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다.

선진 외국에서는 흡연의 위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 부터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하여 흡연율을 절반 이상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며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신동천, 1990).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부터 종교계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금연운동이 시작되어 각종 사회단체로 확산됨에 따라(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88) 1988년에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이를 계기로 금연운동이 과거에 비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김일순외, 1989) 담배 소비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의 흡연율은 오히려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

하면 1988년의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40.4%였으나 1991년에는 44.7%로 증가하였고(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1), 여고생의 흡연경험률도 1988년 12.9%에서(심은희, 1988), 1990년에는 14.9%(고막래, 1990), 1992년에는 33.5%(이계은, 1992)로 4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로 미루어 여대생의 흡연경험률도 1987년에 28.6%(송미숙, 1987)로 보고된 후 조사된 바 없으나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리라 짐작된다.

여성의 흡연은 여성 자신은 물론 임신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흡연을 행할 때 야기되는 가족들의 간접 흡연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는 국민 보건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Yankauer A, 1983). 실제로 여성 흡연에 있어 임신중 흡연은 사산, 조산, 선천성 기형 및 저체중아 출생률을 증가시키고(정태훈, 1987; Hebel, 1988), 또한 어머니가 흡연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기관지염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및 폐염, 중

이염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며, 어린이의 발육도 지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일순, 1987; Bonham, 1981). 그러나 최근 사회가 개방화되고 자유화되면서 그동안 거의 금기시 되어 왔던 여성 흡연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대생들 중에는 흡연이 마치 여성해방 의식의 표현이거나 사회적인 지위 향상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여 흡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김일순, 1992) 흡연의 유해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건교육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흡연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여대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흡연실태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도 및 태도를 파악하고,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 II.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1개 여자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총 61개 학과를 4개 계열(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의학)로 구분하여 총 9개 학과의 재학생 1,6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그 중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일부 학과의 학생들을 제외한 1,2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미리 예비조사를 거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5년 5월 22일에서 6월 18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연구자, 해당학과 교수 및 조교들을 통하여 무기명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였으며, 무응답 및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155부를 제외한 1045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 2. 조사내용

설문지에 포함된 조사내용은 본 연구자가 기존의 관련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일반적 특성	종교, 주거상황, 부모 생존여부, 이성친구 유무, 가정 및 학교생활 만족도
흡연실태	흡연여부, 1일 흡연량, 최초흡연시기, 흡연동기, 최초흡연장소, 흡연시 동반자, 부모의 인지여부, 가족 및 친구의 흡연여부 등
흡연에 관한 지식	폐암, 위궤양, 조산 저체중아 출산, 고혈압, 수명단축
흡연에 대한 태도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 배우자 흡연에 대한 태도, 여성흡연에 대한 태도, 금연교육에 대한 태도
건강 관련 행위	규칙적 식사, 커피 음용량, 음주여부, 체중조절

### 3. 자료분석 방법

본 조사에 있어서 비흡연자란(non-smoker)란 전혀 흡연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 과거흡연자(ex-smoker)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흡연해 본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흡연하지 않는 학생, 현재흡연자(current-smoker)는 과거를 불문하고 조사시점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 흡연경험자는 현재흡연자와 과거흡연자를 포함한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조사대상자의 흡연여부와 흡연행태를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고,
- 2) 흡연여부와 개인 특성, 흡연에 관한 지식, 태도, 건강행위 이행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3) 흡연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 III. 조사성적

### 1. 조사대상자의 분포

조사대상자 1,045명의 학년별, 계열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학년별로는 1학년 268명(25.6%), 2학년 337명(32.3%), 3학년 201명(19.2%), 4학년 239명(22.9%)이었으며,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247명(23.6%), 자연계열 310명(29.7%), 예체능계열 227명(21.7%), 의학계열 261명(25.0%)이었다(표 2).

표 2. 조사대상자의 분포

단위 : 명(%)

계열 / 학년	1	2	3	4	계
인문사회계열	63(25.5)	97(39.3)	38(15.4)	49(19.8)	247 (23.6)
자연계열	119(38.4)	105(33.9)	21( 6.8)	65(21.0)	310 (29.7)
예체능계열	38(16.7)	67(29.5)	69(30.4)	53(23.4)	227 (21.7)
의학계열	48(18.4)	68(26.1)	73(28.0)	72(27.6)	261 (25.0)
계	268(25.6)	337(32.3)	201(19.2)	239(22.9)	1045(100.0)

### 2. 조사대상자의 흡연율

본 조사대상자 1,045명 중 현재흡연자는 총 77명으로서 7.4%의 흡연율을 나타내었고, 과거흡연자는 20.6%(215명)였으며 따라서 흡연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흡연경험자는 모두 28.0%(292명)였고, 흡연경험이 전혀 없는 비흡연자는 72.0%(753명)이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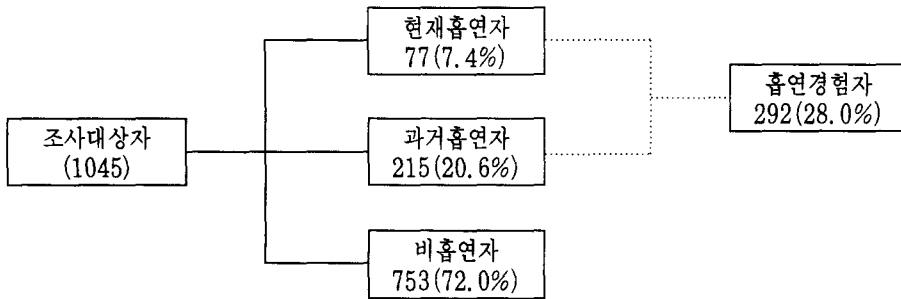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자의 흡연율

1) 학년별 흡연율

학년별 흡연율을 보면 3학년이 10.9%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4학년(10.0%), 2학년(5.9%), 1학

년(4.1%)의 순으로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흡연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3).

표 3. 학년별 흡연율

단위 : 명(%)

학 년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chi^2$
1 학 년	11(4.1)	32(11.9)	225(84.0)	268(100.0)	
2 학 년	20(5.9)	74(22.0)	243(72.1)	337(100.0)	34.05**
3 학 년	22(10.9)	54(26.9)	125(62.2)	201(100.0)	
4 학 년	24(10.0)	55(23.0)	160(67.0)	239(100.0)	

2) 전공계열별 흡연율

전공계열별 흡연율은 예체능계열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인문사회계열로 10.6%였고,

자연계열 1.9%, 의학계열 1.2%의 순이었으며 전공계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표 4. 전공계열별 흡연율

단위 : 명(%)

계 열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chi^2$
인문사회계열	26(10.6)	68(27.5)	153(61.9)	247(100.0)	
자연계열	6(1.9)	46(14.9)	258(83.4)	310(100.0)	99.8**
예체능계열	42(18.5)	55(24.2)	130(57.3)	227(100.0)	
의학계열	3(1.2)	46(17.6)	212(81.2)	261(100.0)	

### 3. 흡연행태

#### 1) 현재흡연자와 과거흡연자의 흡연양상

흡연경험자의 흡연양상을 보면 최초흡연시기는 대학 입학후가 69.2%로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생 16.8%, 중학생 7.2%, 재수생 시절이 4.1%로 28.1%가 대학에 들어오기 전 이미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이 5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긴장해

소' (21.6%), '친구, 선배의 권유' (12.0%)의 순이었다. 최초흡연장소는 '유흥장소'가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기방' (20.5%), '학교' (11.3%), '여행지' (3.1%), 'MT' (1.7%)의 순이었다. 흡연시 동반자로는 '친구가' 62.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혼자서' (19.9%), '선후배' (5.1%), '형제' (2.4%)의 순이었다(표 5).

표 5. 현재흡연자 및 과거흡연자의 흡연양상

단위 : 명(%)

계 열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계
<b>최초흡연시기</b>			
중 학생	4 ( 5.2)	17 ( 7.9)	21 ( 7.2)
고등학생	18 (23.4)	31 (14.4)	49 (16.8)
재 수 생	3 ( 3.9)	9 ( 4.2)	12 ( 4.1)
대 학 생	50 (64.9)	152 (70.7)	202 (69.2)
무 응 답	2 ( 2.6)	6 ( 2.8)	8 ( 2.7)
<b>흡연시작동기</b>			
호 기 심	33 (42.9)	136 (63.3)	169 (57.9)
긴장 해소	35 (45.4)	28 (13.0)	63 (21.6)
친구, 선배의 권유	7 ( 9.1)	28 (13.0)	35 (12.0)
멋있게 보여서	0 ( 0.0)	3 ( 1.4)	3 ( 1.0)
기 타	0 ( 0.0)	4 ( 1.9)	4 ( 1.4)
무 응 답	2 ( 2.6)	16 ( 7.4)	18 ( 6.1)
<b>최초흡연장소</b>			
유흥장소	40 (51.9)	105 (48.8)	145 (49.6)
자 기 방	9 (11.7)	51 (23.7)	60 (20.5)
학 교	16 (20.8)	17 ( 7.9)	33 (11.3)
여 행 지	0 ( 0.0)	9 ( 4.2)	9 ( 3.1)
M . T	0 ( 0.0)	5 ( 2.3)	5 ( 1.7)
기 타	6 ( 7.8)	10 (13.0)	16 ( 5.5)
무 응 답	6 ( 7.8)	18 ( 8.4)	24 ( 8.2)
<b>흡연시 동반자</b>			
친 구	42 (54.5)	140 (65.1)	182 (62.3)
혼 자	20 (26.0)	38 (17.7)	58 (19.9)
선 후 배	5 ( 6.5)	10 ( 4.6)	15 ( 5.1)
형 제	1 ( 1.3)	6 ( 2.8)	7 ( 2.4)
기 타	3 ( 3.9)	7 ( 3.3)	10 ( 3.4)
무 응 답	6 ( 7.8)	14 ( 6.5)	20 ( 6.9)
계	77(100.0)	215(100.0)	292(100.0)

2) 현재흡연자의 1일 흡연량 및 금연시도 유무

현재흡연자의 1일 평균 흡연량은 3-5개피가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6-10개피(31.2%), 2개피 이하(27.3%)의 순으로 평균 6.16 ± 5.29 개피였으며, 예체능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흡연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흡연자 77명 중 31.2%가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금연시도를 한 적이 있는 학생도 예체능계열이 가장 많았다(표 6).

현재흡연자의 흡연사실을 부모님이 알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66.2%가 부모 모두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어머니만 안다가 18.2%, 아버지만 안다가 1.3%였고 11.7%만이 부모 모두 안다고 답하여 부모 모르게 흡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현재흡연자의 흡연량 및 금연시도 유무

단위 : 명(%)

흡연량 및 금연시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계
<b>1일 평균 흡연량</b>					
2개피 이하	9 (34.6)	3 (50.0)	7 (16.7)	2 (66.7)	21 (27.3)
3 ~ 5 개 피	11 (42.3)	2 (33.3)	12 (28.6)	0 (0.0)	25 (32.4)
6 ~ 10 개 피	5 (19.2)	0 (0.0)	18 (42.7)	1 (33.3)	24 (31.2)
11개피 이상	1 (3.9)	1 (16.7)	5 (11.9)	0 (0.0)	7 (9.1)
평균 ±S.D	4.46±3.53	4.67±5.42	7.55±5.93	4.33±4.93	6.16±5.29
<b>금연시도 유무</b>					
있다	7 (26.9)	1 (16.7)	16 (38.1)	0 (0.0)	24 (31.2)
없다	19 (73.1)	5 (83.3)	26 (61.9)	3(100.0)	53 (68.8)
계	26(100.0)	6(100.0)	42(100.0)	3(100.0)	77(100.0)

3) 과거흡연자의 금연동기

과거흡연자 215명에 있어서 금연하게 된 중요 동기로는 과반수 이상인 60.5%가 '생리에 맞지 않아

서' 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이 '건강상 유해성을 인식하여' (27.0%), '종교상' (2.3%), '주위의 권유' (1.4%) 때문이라고 답하였다(표 7).

표 7. 과거흡연자의 금연동기

단위 : 명(%)

금연동기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계
생리에 맞지 않아	42 (61.7)	35 (76.1)	27 (49.1)	26 (56.5)	130 (60.5)
유해성을 인식하여	15 (22.1)	8 (17.4)	20 (36.3)	16 (34.8)	59 (27.4)
종 교 상	1 (1.5)	2 (4.3)	1 (1.8)	1 (2.2)	5 (2.3)
주위의 권유로	2 (2.9)	0 (0.0)	1 (1.8)	0 (0.0)	3 (1.4)
기 타	0 (0.0)	1 (2.2)	3 (5.5)	2 (4.3)	6 (2.8)
무응답	9 (11.8)	0 (0.0)	3 (5.5)	1 (2.2)	12 (5.6)
계	68(100.0)	46(100.0)	57(100.0)	46(100.0)	215(100.0)

#### 4. 조사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

##### 1) 여성흡연에 대한 태도

여성의 흡연에 대해 현재흡연자의 97.4%, 과거 흡연자의 75.0%가 '남성흡연과 다를 바 없다'는 태

도를 보인 반면에 비흡연자의 46.3%는 '좋지 않게 보인다'고 응답하여 흡연여부에 따라 여성흡연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를 보였다(표 8).

표 8. 여성흡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남성흡연과 다를 바 없다	75 (97.4)	156 (75.0)	395 (53.7)	626 (61.4)
좋지 않게 보인다	2 ( 2.6)	52 (25.0)	340 (46.3)	394 (38.6)
계	77(100.0)	208(100.0)	735(100.0)	1020(100.0)

$\chi^2 = 76.513^{**}$

\*\* p<0.01

##### 2) 조사대상자의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

앞으로의 흡연여부에 대해 비흡연자의 76.7%가 결코 피우지 않겠다고 답한 반면 현재흡연자와 과거 흡연자에 있어서는 각각 54.5%, 40.9%만이 결코 피우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현재흡연자의

23.4%는 앞으로도 계속 흡연하겠다고 하였으며, 과거흡연자의 54.9%, 비흡연자의 15.7%는 안 피운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이들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표 9).

표 9. 조사대상자의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결코 안 피우겠다	88 (40.9)	42 (54.5)	578 (76.7)	708 (67.8)
피우겠다	0 ( 0.0)	18 (23.4)	0 ( 0.0)	18 ( 1.7)
안 피운다고 장담할 수 없다	118 (54.9)	15 (19.5)	118 (15.7)	251 (24.0)
기 타	9 ( 4.2)	2 ( 2.6)	57 ( 7.6)	68 ( 6.5)
계	77(100.0)	215(100.0)	753(100.0)	1045(100.0)

##### 3) 배우자 흡연에 대한 태도

결혼후 남편이 흡연할 경우, 비흡연자의 과반수 이상인 59.3%가 '무조건 끊으라고 하겠다'의 금연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반면 현재흡연자는 9.2%만이 '무조건 끊으라고 하겠다'고 답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현재흡연자의 56.6%는 '지나친 흡연이 아니면 피워도 좋다'는 관대한 태도를 보여 흡연여부에 따라 배우자 흡연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표 10. 배우자 흡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무조건 끊으라고 하겠다	7 ( 9.2)	88 (41.7)	438 (59.3)	533 (52.0)
지나친 흡연이 아니면 피워도 좋다	43 (56.6)	79 (37.4)	203 (27.5)	325 (31.7)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피워도 무방하다	12 (15.8)	28 (13.3)	87 (11.8)	127 (12.4)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않겠다	14 (18.4)	16 ( 7.6)	10 ( 1.4)	40 ( 3.9)
계	77(100.0)	211(100.0)	738(100.0)	1025(100.0)

\*\* p<0.01

4) 금연교육에 대한 태도

금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비흡연자의 89.8%, 과거흡연자의 83.7%, 현재흡연자의 80.5%가 꼭 필요하다고 답하여 전체 대상자의 87.8%인 대다수의 학생이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흡연자의 16.9%, 과거흡연자의 16.3%, 비흡연자의 9.7%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여 비흡연자일수록 금연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표 11).

표 11. 금연교육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금연교육에 대한 태도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꼭 필요하다	62 (80.5)	180 (83.7)	676 (89.8)	918 (87.8)
별로 필요하지 않다	13 (16.9)	35 (16.3)	73 (9.7)	121 (11.6)
불필요하다	2 ( 2.6)	0 ( 0.0)	4 ( 0.5)	6 ( 0.6)
계	77(100.0)	215(100.0)	753(100.0)	1045(100.0)

$\chi^2 = 10.08^{**}$

\*\* p<0.01

5. 흡연관련요인

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흡연상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우선 종교별 흡연상태를 보면 종교가 없는 학생 376명 중 현재흡연자는 10.6%, 과거흡연자는 20.2%, 비흡연자는 69.2%였던 반면 기독교를 믿는 학생 392명 중에는 현재흡연자가 5.6%, 과거흡연자가 21.4%, 비흡연자가 73.0%였으며, 기타 종교를 가진 학생 277명 중에

는 현재흡연자가 5.4%, 과거흡연자가 19.9%, 비흡연자가 74.7%로 종교에 따라 흡연 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거상황별 흡연상태는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경우 현재흡연자는 8.0%, 과거흡연자는 19.8%였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현재흡연자는 5.4%, 과거흡연자는 22.8%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에 있어서의 흡연율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생존



여부별 흡연상태는 양친생존의 경우 현재흡연자가 7.2%, 과거흡연자가 20.5%였고, 편부모인 경우에는 현재흡연자가 10.2%, 과거흡연자가 23.1%로 편부모인 경우 흡연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 중 현재흡연자는 10.3%, 비흡연자는 68.5%였고, 이성친구가 없는 학생에 있어서는 현재흡연자가 5.8%, 비흡연자가 74.0%로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

정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현재흡연자는 4.4%, 비흡연자는 77.1%인데 반해 불만족하는 경우 현재흡연자는 19.2%, 비흡연자는 5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현재흡연자는 4.9%, 비흡연자는 76.6%에 비해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재흡연자 14.1%, 비흡연자 59.2%로 유의한 차를 보여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에 있어서 흡연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12).

표 1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흡연상태

단위 : 명(%)

구 분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chi^2$
<b>종 교</b>					
종교없음	40 (10.6)	76 (20.2)	260 (69.2)	376 (100.0)	9.52*
기독교	22 ( 5.6)	84 (21.4)	286 (73.0)	392 (100.0)	
기타종교	15 ( 5.4)	55 (19.9)	207 (74.7)	277 (100.0)	
<b>주거상황</b>					
부모와 동거함	63 ( 8.0)	156 (19.8)	567 (72.2)	786 (100.0)	2.62
부모와 동거안함	14 ( 5.4)	59 (22.8)	186 (71.8)	259 (100.0)	
<b>부모생존여부</b>					
양친생존	73 ( 7.2)	206 (20.5)	727 (72.3)	1006 (100.0)	0.75
편부모	4 (10.2)	9 (23.1)	26 (66.7)	39 (100.0)	
<b>이성친구유무</b>					
있 다	38 (10.3)	78 (21.2)	252 (68.5)	368 (100.0)	7.86*
없 다	39 ( 5.8)	137 (20.2)	501 (74.0)	677 (100.0)	
<b>가정생활만족도</b>					
만 족	31 ( 4.4)	130 (18.5)	542 (77.1)	703 (100.0)	42.24**
그저그렇다	32 (11.9)	69 (25.6)	168 (62.5)	269 (100.0)	
불만족	14 (19.2)	16 (21.9)	43 (58.9)	73 (100.0)	
<b>학교생활만족도</b>					
만 족	20 ( 4.9)	76 (18.5)	315 (76.6)	411 (100.0)	20.19**
그저그렇다	37 ( 7.5)	101 (20.5)	354 (72.0)	492 (100.0)	
불만족	20 (14.1)	38 (26.7)	84 (59.2)	142 (100.0)	

\* p<0.05 \*\* p<0.01

2) 가족 및 친구의 흡연여부별 흡연상태

가족 및 친구의 흡연이 대상자의 흡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 어머니, 남자형제, 여자형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흡연여부별로 흡연상태를 비교하여 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3).

특히 어머니가 흡연할 경우는 현재흡연자가 28.6%, 과거흡연자가 35.7%로 무려 84.3%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어머니가 흡연하지 않는 경우의 흡연경험률 27.5%에 비해 3배 이

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흡연하는 여자형제가 있을 경우 현재흡연자는 47.4%, 과거흡연자는 26.3%로 흡연하는 여자형제가 없는 경우의 현재흡연자 6.6%, 과거흡연자 20.5%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흡연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 현재흡연자는 20.0%, 과거흡연자는 31.7%로 51.7%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흡연하는 여자친구가 없는 경우의 현재흡연자 3.1%, 과거흡연자 16.8%와 큰 차이를 보였다.

표 13. 가족 및 친구의 흡연여부별 흡연율

단위 : 명(%)

가족및친구 흡연여부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chi^2$
아버지 : (+)	49 (10.1)	107 (21.9)	331 (68.0)	487 (100.0)	11.96**
(-)	28 ( 5.0)	108 (19.4)	422 (75.6)	558 (100.0)	
어머니 : (+)	4 (28.6)	5 (35.7)	5 (35.7)	14 (100.0)	12.49**
(-)	73 ( 7.1)	210 (20.4)	748 (72.5)	1031 (100.0)	
남자형제 : (+)	33 (13.0)	69 (27.2)	152 (59.8)	254 (100.0)	28.44**
(-)	44 ( 5.5)	146 (18.5)	601 (76.0)	791 (100.0)	
여자형제 : (+)	9 (47.4)	5 (26.3)	5 (26.3)	19 (100.0)	37.82**
(-)	68 ( 6.6)	210 (20.5)	748 (72.9)	1026 (100.0)	
남자친구 : (+)	45 (13.0)	89 (25.8)	211 (61.2)	345 (100.0)	37.83**
(-)	32 ( 4.6)	126 (18.0)	542 (77.4)	700 (100.0)	
여자친구 : (+)	53 (20.0)	84 (31.7)	128 (48.3)	265 (100.0)	126.04**
(-)	24 ( 3.1)	131 (16.8)	625 (80.1)	780 (100.0)	

\*\* p<0.01

3) 식생활 행태별 흡연율

흡연과 식생활 행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식사의 규칙성 여부, 1일 커피 음용량, 음주 여부, 체중조절 여부별로 흡연상태를 비교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 576명 중 현재흡연

자는 5.7%, 과거흡연자는 18.4%, 비흡연자는 75.9%인데 반해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 469명 중 현재흡연자는 9.4%, 과거흡연자는 23.2%, 비흡연자는 67.4%로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학생의 경우 현

재흡연자는 4.2%, 과거흡연자는 17.2%인데 반해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경우 현재흡연자는 21.0%, 과거흡연자는 27.6%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학생일수록 흡연율도 높게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경우 현재흡연자가 8.4%, 비흡연자가 69.3%인데 반해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흡연자가 0.7%, 비흡연자가 89.4%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음주를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체중조절을 하는 학생 중 현재흡연자는 9.3%, 과거흡연자는 22.3%인데 반해 체중조절을 안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현재흡연자가 4.6%, 과거흡연자는 18.2%로 유의한 차를 보여 체중조절을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중조절을 위해 흡연하는 학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표 14).

표 14. 식생활 형태별 흡연상태

단위 : 명(%)

식생활 형태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chi^2$
식사의 규칙성					
규칙적	33 ( 5.7)	106 (18.4)	437 (75.9)	576 (100.0)	10.21**
불규칙적	44 ( 9.4)	109 (23.2)	316 (67.4)	469 (100.0)	
1일 커피음용량					
거의 마시지 않음	21 ( 4.2)	87 (17.2)	398 (78.6)	506 (100.0)	
1 - 2잔	34 ( 7.8)	99 (22.8)	301 (69.4)	434 (100.0)	49.63**
3잔 이상	22 (21.0)	29 (27.6)	54 (51.4)	105 (100.0)	
음주					
한다	76 ( 8.4)	201 (22.3)	626 (69.3)	903 (100.0)	25.96**
안한다	1 ( 0.7)	14 ( 9.9)	127 (89.4)	142 (100.0)	
체중조절					
한다	57 ( 9.3)	136 (22.3)	417 (68.4)	610 (100.0)	12.65**
안한다	20 ( 4.6)	79 (18.2)	336 (77.2)	435 (100.0)	

\*\* p<0.01

#### 4)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점수별 흡연상태

흡연의 인체 유해에 관한 설문 5개 항목에 대한 정답률은 표 15와 같다.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유발될 수 있다고 정답한 학생은 96.2%로 거의 모든 학생이 알고 있었으나, 조산·저체중아의 출산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흡연자의 70.1%, 과거흡연자의 71.7%만이 알고 있었고, 또한 흡연이 위궤양, 고혈압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답한 학생은 각각 20.2%, 30.2%에 지나지 않아 정확한 보건지식

습득을 위한 학교보건교육이 조속히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 지식문항을 문항당 1점씩으로 배점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4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비흡연자의 31.2%, 현재흡연자의 24.7%, 과거흡연자의 27.0%였고, 1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현재흡연자의 15.6%, 과거흡연자의 11.1%, 비흡연자의 6.5%로 비흡연자가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에 비해 흡연에 관한 지식이 더 높았다(표 16).

표 15.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항목별 정답률

단위 : 명(%)

지 식 항 목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폐 암	70 (90.9)	205 (95.4)	730 (97.0)	1005 (96.2)
조산, 저체중아 출산	54 (70.1)	165 (76.7)	605 (80.4)	824 (78.9)
위 궤 양	15 (19.5)	46 (21.4)	150 (19.9)	211 (20.2)
고 혈 압	20 (26.0)	57 (26.5)	239 (31.7)	316 (30.2)
수 명 단 축	56 (72.7)	160 (74.4)	615 (81.7)	831 (79.5)

표 16. 흡연상태별 흡연지식 점수

단위 : 명(%)

지 식 점 수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1점 이하	12(15.6)	24 (11.2)	49 ( 6.5)	85 ( 8.1)
2 - 3점	46(59.7)	133 (61.8)	469 (62.3)	648 (62.0)
4점 이상	19(24.7)	58 (27.0)	235 (31.2)	312 (29.9)
계	77(24.7)	215(100.0)	753(100.0)	1045(100.0)

$\chi^2 = 11.95^*$

\* p<0.05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습득 경로는 라디오·TV(51.0%), 신문·잡지(38.8%)가 전체의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교라고 응답한 경

우는 경우 7.7%에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의 보건 교육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표 17).

표 17.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습득 경로

단위 : 명(%)

지식습득 경로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계
라디오, T. V.	36 (46.7)	104 (48.3)	393 (52.2)	533 (51.0)
신문, 잡지	31 (40.3)	87 (40.5)	287 (38.1)	405 (38.8)
학 교	6 ( 7.8)	16 ( 7.4)	58 ( 7.7)	80 ( 7.7)
친 구	1 ( 1.3)	4 ( 1.9)	6 ( 0.8)	11 ( 1.1)
부 모	3 ( 3.9)	3 ( 1.4)	2 ( 0.3)	8 ( 0.8)
기 타	0 ( 0.0)	1 ( 0.5)	7 ( 0.9)	8 ( 0.8)
계	77 (100.0)	215 (100.0)	753(100.0)	1045(100.0)

5)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흡연여부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흡연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및 친구의 흡연여부, 흡연에 관한 지식도, 식생활 행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았다.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변수는 가정생활 만족도, 여자형제의 흡연, 여자친구의 흡연, 흡연에 관한 지식도, 커피음용량, 음주여부의 6개 변수로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흡연하는 여자형제가 있을수록, 흡연하는 여자친구가 있을수록, 흡연에 관한 지식도가 낮을수록,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음주를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Odds Ratio	CI 95%	p
가정생활 만족도	0.54	0.37 - 0.80	< 0.01
커피 음용량	0.61	0.43 - 0.87	< 0.01
음주여부	0.10	0.01 - 0.81	< 0.05
여자형제의 흡연	0.20	0.06 - 0.65	< 0.01
여자친구의 흡연	0.19	0.11 - 0.33	< 0.01
흡연에 관한 지식	1.31	1.03 - 1.67	< 0.05

IV. 고 찰

본 조사에서 나타난 여대생의 흡연율은 7.4%로 이는 1992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5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 3.7%나 1994년 한국결핵 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20세 이상의 흡연율 3.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 전체 성인여성 중 여대생 집단의 흡연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수경(1986)과 송미숙(1987)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10.0%, 9.7%와 비교하면 본 조사가 8, 9년 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이것은 여대생의 흡연율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앞으로 여대생 흡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학년별 흡연율을 보면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높은 흡연율을 보여 주어 이수경(1986)과 송미숙(1987)의 보고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별 흡연율에 있어서는 계열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김경희 등(1979)과 송미숙(1987)의 조사보고와는 달리 본 조사에서는 의학계열 및 자연계열이 각각 1.2%, 1.9%로 낮은 흡연율을 보인 반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각각 18.5%, 10.6%로 높게 나타나 전공계열간에 심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아마 전공지식 습득과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조사 결과 흡연경험자들의 최초흡연시기는 대학 시절이 69.2%로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생 시절이 16.8%, 중학생 시절도 7.2%나 되어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교육은 중고등학교 혹은 국민학교때 부터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흡연자의 64.9%가 대학 입학후 흡연하게 되었다는 사실

과 또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흡연율이 높다는 사실을 볼 때 대학에서의 흡연예방을 위한 보건교육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흡연시작 동기는 '호기심'이 5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긴장해소' (21.6%), '친구, 선배의 권유' (12.0%)의 순이었으며, 이것은 심은희(1987), 이영란 등(1991), 최순옥 등(1991)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많은 젊은 여성들이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eade와 Wald(1977)는 1일 15개피 이하의 흡연을 가벼운 흡연(light smoking), 16개피 이상의 흡연을 과도 흡연(heavy smoking)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조사 결과 현재흡연자의 1일 평균흡연량은 평균 6개피 이고, 90.9%가 10개피 이하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가벼운 흡연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여대생들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하여 가벼운 흡연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이들 여대생들이 니코틴에 의해 습관화되기전 빨리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과거흡연자가 금연하게 된 동기로는 '생리에 맞지 않아서'가 6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강상 유해성을 인식하여' (27.4%), '종교상' (2.3%)의 순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흡연자의 금연을 위해서는 생리에 맞지 않아 흡연자가 스스로 흡연을 포기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상 유해성의 인식을 위한 보건교육만이 금연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성흡연에 대해서는 비흡연자의 46.3%가 좋지 않게 보인다고 답한 반면 현재흡연자는 2.6%만이 좋지 않게 보인다고 답하여 이수경(1986), 심은희(1988), 이계은(1992) 등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흡연자일수록 여성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여성흡연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흡연행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래 흡연에 대해서는 현재흡연자의 54.5%만이 '결코 안 피우겠다'고 답하였을 뿐 23.4%는 '앞으로도 피우겠다', 19.5%는 '안 피운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이들의 장래 흡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흡연자의 금연도 중요하지만 현재 흡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흡연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도 아울러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 87.8%라는 대다수의 학생이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최순옥 등(1991)이 산업체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 43.6%보다 2배 가량 높아 근로여성보다 여대생들의 금연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 관련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흡연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사한 결과 종교가 없는 학생의 경우 종교를 가진 학생의 경우보다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흡연을 금기시하고 있는 기독교를 믿는 학생의 경우가 타종교를 가진 경우보다 흡연율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 김기순 등(1994)의 조사에서 기독교를 믿는 경우 흡연율이 가장 낮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경우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숙(1982), 이영란 등(1992)의 결과와는 상반되었으나 맹광호 등(1993)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이것은 대학생은 이미 성인이므로 부모와의 동거가 흡연여부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Nolte(1983)는 편부모인 경우가 양친생존의 경우보다 흡연율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편부모인 경우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았다는 기존의

보고(심은희, 1988; 이승련, 1988; 이계은, 1992)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도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았으며,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 흡연율이 높았으며(심은희, 1988; 이해숙 등, 1989; 이영란 등, 1991; 임 용 등, 1992; 박 종 등, 1992; 김기순 등, 1994; Strebel 등, 1989; Dusenbury, 1992),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 흡연율이 높았다(이계은, 1992; 박 종 등, 1992; 김기순 등, 1994). 본 조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남자형제, 여자형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 흡연자가 있는 학생에 있어서의 흡연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형제, 여자친구의 흡연은 여대생의 흡연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행태와 흡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1일 커피음용량이 많을수록, 음주를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나 이수경(1986), 박 종 등(1992), Oleckno 등(1990), Revicki 등(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았다는 이수경(1986), 송미숙(1987), 이계은 등(1992)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체중조절을 하는 학생일수록 높은 흡연율을 보여 주었는데 이것은 Jacobs(1981)가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체중이 가볍다고 보고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대생의 흡연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96.2%가 알고 있었으나 위궤양,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각각 20.2%, 30.2%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임신시에 흡연을 하면 조산, 저체중아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대해서는 78.9%만이 바로 알고 있었으며, 특히 현재흡연

자의 29.9%가 모르고 있었다. 조수현(1987)에 의하면 흡연산모에서 조산율이 증가하고, 이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며, 증가 이유는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조기과막의 빈도가 높아 이로 인한 조기분만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Cardozo 등(1982)은 2500g 미만의 자궁내 발육지연 태아의 1/3 이상이 흡연에 기인한다고 한 바 이러한 지식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앞으로 결혼후 임신시 흡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흡연 유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을 위한 보건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보건교육이란 궁극적으로 피교육자로 하여금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행동 결정(behavioral decision making)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Duryea, 1983). 건강에 대하여 정보만 습득한 사람과 교육받은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보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경, 1986). 본 조사 결과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경로는 '라디오·TV'(51.0%), '신문·잡지'(38.8%) 등을 통한 정보가 대부분이었고 '학교'를 통한 지식습득은 겨우 7.7%에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의 금연을 위한 보건교육의 부재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학교보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정문숙, 1980), 김은숙 등(1990)이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흡연하는 학생이나 금연에 대한 지도를 보건교육내용 중에 교육하도록 지시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므로 앞으로 금연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보건 프로그램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고자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생활 만족도, 커피음용량, 음주여부, 여자형제의 흡연, 여자친구의 흡

연, 흡연에 관한 지식이 유의한 관련변수로 선정되어 이것은 김택민 등(1992)의 보고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흡연, 흡연지식 등이, 또한 김기순 등(1994)의 연구에서 친한 친구의 흡연, 형제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 등이 유의한 변수로 보고된 것과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족 및 친구의 흡연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흡연 유해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여 확고한 금연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흡연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 V. 결 론

여대생들의 흡연실태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1995년 5월 22일에서 6월 18일까지 1개 여자대학생 1,0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 1,045명 중 흡연경험자는 28.0%인 292명이었으며, 이 중 현재흡연자는 77명으로 흡연율은 7.4%였다. 학년별 흡연율은 3학년이 1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4학년(10.0%), 2학년(5.9%), 1학년(4.1%)의 순이었으며,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전공계열별 흡연율은 예체능계열이 1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인문사회계열(10.6%), 자연계열(1.9%), 의학계열(1.2%)의 순이었으며, 전공계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2. 흡연경험자의 최초흡연시기는 중학생 시절이 7.2%, 고등학생 시절이 16.8%, 재학생 시절이 4.1%, 대학 시절이 69.2%였으며, 흡연시작 동기는 호기심이 5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긴장해소(21.6%), 친구 및 선배의 권유(12.0%)의 순이었다. 최초흡연장소는 유흥장소가 49.6%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이 자기방(20.5%), 학교(11.3%), 여행지(3.1%)의 순이었다. 흡연시 동반자로는 친구가 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혼자(19.9%), 선후배(5.1%), 형제(2.4%)의 순이었다.

3. 현재흡연자의 1일 평균흡연량은 31.2%가 금연을 시도해 본 경험을 갖고 있었다.

4. 과거흡연자가 금연하게 된 이유로는 '생리에 맞지 않아서'가 6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건강상 유해성을 인식하여'(27.4%), '종교상'(2.3%)의 순이었다.

5. 흡연자일수록 비흡연자에 비해 여성흡연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비흡연자의 76.7%가 장래 흡연여부에 대해 강한 금연의사를 밝힌데 반해 현재흡연자의 23.4%는 계속 흡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6. 금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비흡연자의 89.8%, 과거흡연자의 83.7%, 현재흡연자의 80.5%가 꼭 필요하다고 답하여 대다수의 학생이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7.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일수록( $p < 0.05$ ),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일수록( $p < 0.01$ ),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일수록( $p < 0.05$ )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8. 아버지, 어머니, 남자형제, 여자형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흡연을 하고 있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1$ ).

9.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일수록, 커피를 많이 마시는 학생일수록, 음주를 하는 학생일수록, 체중조절을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1$ ).

10. 흡연의 인체유해성에 관한 지식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낮았으며( $p < 0.05$ ), 지식습득 경로는 라디오·TV(51.0%), 신문·잡지(38.8%)가 전체의 89.8%로 대부분이었고, 학교를 통한 지식습득은 겨우 7.7%에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의 부



재를 알 수 있었다.

11.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정생활 만족도, 커피음용량, 음주여부, 여자형제의 흡연, 여자친구의 흡연, 흡연에 대한 지식이 흡연에 유의한 관련 인자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흡연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지식습득 경로는 라디오·TV, 신문·잡지 등의 매스컴을 통한 지식이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학교에서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제언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1. 고막래, 남녀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지식, 인식 및 행동에 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0
2. 김기순, 김양옥, 박 종, 최진수, 일부 대학 신입생들의 흡연관련요인, 대한예방의학회지, 1994; 20(1): 3-14
3. 김경희, 최삼섭, 일부 도시 남자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1979
4. 김은숙, 조원정,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의 금연교육 실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0; 7(2): 59-68
5. 김은지, 김 명, 서울시내 일부 중년층 남성의 금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1; 8(1): 45-57
6. 김일순,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1987; 30(8): 825-830
7. 김일순 외, 바른건강생활, 보건사회부, 1989; 제9집
8. 김일순, 여성 및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보건주보, 1992; 제853호
9. 김택민, 지선하, 오희철, 고교생들의 금연교육 효과 분석, 한국역학회지, 1992; 14(2): 175-183
10. 맹광호, 신의철, 1개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흡연 실태 및 흡연관련 특성 분석, 한국역학회지, 1993; 15(1): 96-104
11. 박 종, 김병우, 김양옥, 김기순, 한 대학 신입생의 흡연과 건강 관련 행위 및 자각 증상과의 연관성, 대한예방의학회지, 1992; 25(3): 223-237
12. 송미숙, 여대생에 있어서 흡연 양상과 흡연이 영양 섭취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87; 4(2): 71-93
13. 신동천, 우리나라의 흡연율과 담배로 인한 건강 장애, 보건주보, 1990; 제 768호
14. 심은희, 서울특별시 여고생의 흡연 실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8
15. 이계은, 김 명, 여고생의 흡연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2; 9(1): 39-47
16. 이수경, 일부 여대생의 흡연 실태와 그에 따른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17. 이영란, 김현자, 이고봉, 이병철, 최상모, 흡연과 가족 기능지수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가정의학회지, 1991; 12(5): 38-45
18. 이영숙,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2
19. 이해숙, 김일순, 서 일, 전국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2년간의 흡연력의 비교, 1989; 11(2): 198-208
20. 임 용, 김광휘, 박월미, 이홍수, 이종훈, 고교생 흡연 실태 및 가족 기능지수와 흡연과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1992; 13(7): 592-601
21. 정문숙,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교육에 관한 태도, 중앙의학, 1980; 38(3): 137
22. 정태훈, 여성에서의 흡연, 결핵 및 호흡기 질환, 1987; 34(3): 192-196
23. 조수현, 여성과 흡연, 대한의학협회지, 1987; 30(8): 849-852

24. 최순옥, 박정환, 산업체 근로 여성들의 흡연율과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한국역학회지, 1991 ; 13(2) : 146-158
25.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와 건강, 1988 ; 11월호
26.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1991
27. Bonham, G. S., Children's health in families with cigarette smoker, *AJPH*: 1981 ; 71(3) : 290-293
28. Cardozo L.D., Gibb D.M., Studd J.W., Social and Obstetric Features Associated with Smoking in Pregnancy, *Br. J. Obstet. Gynecol.* 1982 ; 89 : 622
29.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US, Smoking and Health, Public health service publication. 1985, p.1103
30. Duryea E.J., Decision making and health education, *JOSH*. 1983 ; 53(1 ) : 29-32
31. Dusenbury L., Kerner J.F., Baker E., Botvin G., Ortiz S.J., Zauber A., Predictors of smoking prevalence among New York latiano youth, *Am J Public Health*. 1991; 82(1) : 55-58
32. Hebel J.R., Fox N.L., and Sexton M., Dose-Reponse of Birth Weight to Various Measures of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J. Clin Epidemiol* 1988 ; 41(5) : 483-489
33. Jacobs D.R., Smoking and Weight : The Minesota Lipid Research Clinic, *AJPH*. 1981 ; 71 : 391-396
34. Meade T.W., Wald N.J., Cigarette smoking patterns during the working day, *Brit J. Prev Soc Med.* 1977 ; 31: 25-29
35. Murray M.,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smoking behavior and attitudes, *J of ECH*. 1985 ; 39 : 169-174
36. Nolte A.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risk attitudes and behaviors and parental presence, *JOSH*. 1983 ; 53(4) : 234-240
37. Oleckno W.A., Blacconiere M.J., A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of smoking status and health 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Am J Prev Med*. 1990 ; 6(6) : 323-329
38. Paine P.A.,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and student smoking behavior in a Brazilian Medical School, *I J of E*. 1985 ; 14(2) : 330-332
39. Revicki D., Sobal J., DeForge B., Smoking status and the practice of other unhealthy behaviors, *Fam-Med*. 1991 ; 23(5) : 361-364
40. Streble P., Kuhn L., Yach D., Determinants of cigarette smoking in the black township population of cape town, *J of ECH*. 1989 ; 43 : 209-213
41. Yankauer A., Smoking, Alcohol and Reproduction, *AJPH*. 1983 ; 73(10) : 1104-1156

< Abstract >

## A Survey on Smoking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for Female Students of A Women' s University in Seoul

Jung Ok Kwak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In order to find smoking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for femal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for 1,045 female students of a women' s university in Seoul from 22nd of May to 18th of June, 199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Of the 1,045 respondents, 7.4% of them were current smokers and 20.6% of them were ex-smokers. The rate of smoking by the major field of study was 18.5% in art and physical education, 10.6% in liberal art and social science, 1.9% in natural science, and 1.2% in medical science. The rate of smoking by the grade was 4.1% in the freshman, 5.9% in the sophomore, 10.9% in the junior, and 10.0% in the senior grade.
2. 7.2% of respondents experienced first smoking at junior high school, 16.8% at senior high school, 4.1% after high school, and 69.2% at college.
3. The major motivation to start smoking was 'curiosity'(57.9%), 'releasing stress'(21.6%), and 'temptation from friend or senior'(12.0%).
4. The first smoking place was 'entertainment place'(49.6%), 'own room'(20.5%), and 'school'(11.3%). And the first smoking companion was 'friend'(62.3%), 'alone'(19.9%), and 'senior or junior'(5.1%).
5. The average quantity of a daily smoking was  $6.16 \pm 5.29$  cigarettes in current smokers and 31.2% of them had experience to quit smoking at least one or more time.
6. Most of the reasons to quit smoking in ex-smoker were due to 'bad taste'(60.5%), 'health concern'(27.4%) and 'religion'(2.3%).
7. Current smoker and ex-smoker had more positive attitude for the female smoking than nonsmoker. And 76.7% of non-smokers answered that they would not smoke in the future.
8. Most correspondents(89.8% of nonsmoker, 83.7% of ex-smoker, 80.5% of current smoker) strongly supported the anti-smoking movement.
9. The major information source in smoking were from 'radio,TV'(51.0%), 'newspaper, magazine'(38.8%) and 'school'(7.7%).
10.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ed factors for smoking status were satisfaction of home life, coffee intake, alcohol drinking, sister' s smoking, girl friend' s smoking, and knowledge about smoking.